

간호대학생의 전공교과목 플립러닝 수업에 대한 경험: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Flipped Learning Experience in Major Subjects of Nursing Students

유하나¹, 윤연서², 김옥분^{3*}

¹대전대학교 간호학과, ²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³인하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Hana Yoo¹, Yeon Seo Yun², Ock-boon Kim^{3*}

¹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Daejeon 34520, Korea

²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03080, Korea

³Center of Teaching and Learning, Inha University, Incheon 22212, Korea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한 전공수업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간호학과 4학년 8명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자료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분석한 결과 총 35개 주제어와 11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11개의 중심의미는 교육 전, 교실 안, 교육 후로 분류하였다. 교육 전 단계는 '정보부족', '심리적 부담감', '교수법 차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학습자의 성취도 차이'가 중심의미로 도출되었다. 교실 안은 '효율적 수업방향', '자신감 향상'이, 교육 후 단계는 '수업에 긍정적 영향', '자기부담 강화', '선호하지 않음', '강의식 선호'로 각각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볼 때 간호학 전공에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이며 심층적인 반복연구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 phenomenological study that aim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class using flipped learning method. The participants are 8 senior nursing students. The data collected by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and analyzed by Colaizzi's method. As a result of this study, 35 key themes and 11 clusters of themes were derived. The 11 thematic categories are classified in pre-education, in-classroom, and post-education. At the pre-education, the theme clusters are 'lack of information', 'psychological burden', 'different teaching methods', 'improvemen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different learner's achievement'. At the in-class, the theme clusters are 'efficient teaching direction' and 'confidence improvement'. At the post-education stage, the theme clusters are 'positive influence on class', 'strengthening self-pay', 'not preferred', and 'lecture preference'. Therefore, a more diversified and in-depth repetitive study is suggested in order to apply the flipped learning method to the nursing major.

Key Words: Flipped Learning, Nursing Students, Qualitative Study

<http://dx.doi.org/10.14702/JPEE.2020.01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21 April 2020; **Revised** 10 May 2020

Accepted 11 May 2020

***Corresponding Author**

E-mail: obkim@inha.ac.kr

I.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현장은 혁신이 요구되고 있고, 학습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1]. 또한 대학 혁신안으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와 경험을 강조하는 프로젝트학습, 문제중심학습, 플립러닝, 온라인 강좌 등의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이러한 교수법 중 하나로서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역전 학습으로 불리어지며 인터넷 기반 학습 모델 중 하나로 미국의 중등 교육에서 처음으로 대중화된 교수학습 방법이다[2,3]. 플립러닝은 교실 수업 시간에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습자의 사고를 촉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의 다양한 활동 수업(active learning)이 이루어지며,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육자들이 이 방법을 교육에 적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학습자의 사고를 다양한 방식으로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둔 플립러닝은 최근에 ‘미래 인재상’ 육성에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현장에서도 지식의 전달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각광받고 확산되고 있으며[4], 간호대학생에게도 핵심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5,6]. 몇몇 과목에 국한되긴 하였지만 간호교육에서도 플립러닝 교수법은 효과적인 교수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4]. 그러나 플립러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업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학적인 완전한 이해 없이 교수학습 방법만 갱신하는 것은 위험하다[7].

이렇듯 몇몇의 연구에서 플립러닝은 효과적이며 효율성이 높은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학습 성과 즉 학업 성적 및 취업 향상에 초점을 둔 분석이며, 실제 학습자들이 이 교수방법을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학습자적 관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은 국내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보건의료계열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해보려는 새로운 시도들이 있으나 플립러닝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받은 간호학생들의 체험을 현상학적 관점을 통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플립러닝 교육 방법의 학습자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는 효과적 플립러닝 교수법 적용을 위한 자료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II. 이론적 배경

A.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의 개념

‘Flip’은 ‘뒤집다’라는 뜻의 단어로, 전통적인 수업의 전달식 간의 이후 학생들이 과제를 집에서 하는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하는 것을 의미하며, 2000년대초 연구에서 ‘거꾸로 학습(inverted learning), 개념이 소개되었고, 2010년 이후로는 거꾸로 교실(inverted classroom) 개념이 소개되었다[8]. 즉 개념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기존 주입식 강의가 아닌 강의 시작 전 온라인으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익히고, 강의 시간에는 토론, 질의 및 응답, 문제 풀이 등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면대면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사전 및 사후 수업 활동을 포함하고, 면대면 수업에서는 사전 학습 내용을 기반으로 둔 응용 및 심화학습 활동에 교수자 피드백, 동료간 상호 작용을 중심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진다[1].

플립러닝 학습의 긍정적 기대효과는 세 가지로 기대된다. 첫째는 학습자의 강의 전 개별 사전 학습으로 이는 학습자의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을 가능하게 한다. 기존의 학습은 교수자의 일방적 전달식 강의에 반해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학습자 수준의 맞춤 교육이 되고, 이는 완전학습을 가능하게 한다[9]. 둘째는 플립러닝 교수법에서는 학습자들은 능동적 학습(Active Learning)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동영상 등의 온라인을 통한 학습은 자신의 학습속도 및 자신의 스케줄에 맞추어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자기주도학습으로 능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10]. 셋째는 플립러닝 교수법의 수업 내에서는 자신이 능동적 참여 수업 및 다양한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함에 따라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향상된다. 이는 사전학습 및 팀 활동 등의 주체로서 참여 함에 따라 이 과정에서 자신감이 향상되며 이는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증진시키게 된다[11].

B. 현상학의 Colaizzi 자료 분석법

현상학이란 20세기 초반 독일의 철학자 Husserl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한 학문으로 개인의 시각으로 경험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현상학이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학문이란 점은 간호학이 현상학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인간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경험의 의미를 통해 건강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지기 때문

이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이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여 인간의 경험 및 대상자의 진술을 통해서 분석하여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 방법이다[12]. 현상학적 분석이란 연구자가 대상자가 겪는 경험을 그 본질에 관한 문장 표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탐독, 반영 및 기술하고 재기술하는 과정으로서[13], Colaizzi 분석법은 현상학적 분석법중의 하나이다.

Colaizzi 분석법의 단계는 첫째, 자료에서 의미있는 대상자의 구, 문장의 기술을 읽는다. 둘째, 탐구하는 현상이 포함된 구, 문장에서 의미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이끌어낸다. 셋째, 의미있는 진술에서 더 일반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을 한다. 넷째, 의미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Meaning)를 이끌어낸다. 다섯째,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clusters), 범주(categories)로 조직한다. 여섯째, 연구주제와 관심있는 현상과 관련시켜 명확한 진술로 완전하고 명확하게 최종적인 기술(exhaustive description)을 한다[14].

Colaizzi의 연구분석방법은 대상자의 진술에 나타난 자신의 경험과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여 이를 일반적이며 추상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이를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다시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재확인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전체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속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15].

C. 플립러닝 교수법을 적용한 간호학 선행연구

간호학계에도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가 꾸준히 시행되고 있었다. 대부분이 플립러닝을 학습에 적용하여 대상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양적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소수의 연구가 대상자에 플립러닝에 따른 학습을 하며 경험을 파악하는 현상학적인 질적연구가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플립러닝의 연구에 대한 전반적 연구분석을 위한 메타 연구도 시행되고 있었다.

간호학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한 양적 연구를 살펴보면 기본간호학 수업과정에 플립러닝의 교수법을 적용한 경우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비판적 사고능력이 향상되었으며[4], 실습수업 참여태도도 향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16]. 정신간호학의 수업의 경우 학습자의 학업수행도 및 핵심역량이 향상되었으며[8], 학습전이 동기 및 학습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17]. 성인간호학 수업의 경우 학습동기는 오히려 낮아졌으나,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비판적 사고 성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또한 플립러닝 수업이 미국 간호사 국가고시 시험인 NCLEX-RN의 점

수를 예측하는 변인이 된다는 결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19], 인지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임상수행능력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났다[20].

플립러닝을 교수법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효과에 대한 경험을 연구한 국내 연구는 총 두 편이었다. 그 중 한편은 질적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한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총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6개의 범주로는 ‘효율적 수업 방향’, ‘수업이해 증진’, ‘미디어 매체를 활용’, ‘새 학습에 적응 미숙’, ‘기술적 지원 부족’, ‘심리적 부담감’으로 나타났다[21]. 또 다른 질적 연구에서는 Colaizzi 현상학적 자료분석을 실시하여 7개의 주제와 3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7개의 주제는 ‘수업이해 향상’, ‘자가학습 시간증대’, ‘발표와 토론 참여의 어려움’, ‘심리적 부담’, ‘미디어매체 활용’, ‘수업이해의 자신감’, ‘교과목에 대한 흥미확대’로 나타났으며, 3개의 중심의미는 ‘수업참여도 향상’, ‘수업방법적응의 어려움’, ‘자신감 향상’으로 나타났다[22].

I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 설계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교수법에 참여한 간호학생들의 플립러닝 경험에 관한 연구로서, 각 개인의 경험에 의미를 두어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Colaizzi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교수법의 참여에 관한 진술을 분석하고,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이다.

B.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에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교수학습방법을 경험한 간호학과 학생들이며, 면담에 참여자들은 D광역시 D대학 간호학과 4학년으로 전공교과목 6학점 이상을 플립러닝 교수학습방법으로 이수한 남학생 1명, 여학생 7명, 총 8명이었다. 이들은 전공필수(○○간호학), 전공기초(A교과)를 공통적으로 수강하였으며, 교양교과목에서의 플립러닝 경험까지 포함하여 최소 6학점에서 최대 15학점까지 플립러닝을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첫째, 학기 중 인터뷰 참여자 모집에 대한 안내를 학과 사무실 게시판에 공고를 통해 이루어졌고 둘째, 학기가 끝나는 마지막 주차에 4학년 수업 공강 시간을 이용하여 간호대학생들에게 연구책임자가 직접 연구의 배경과 목적 등을 설명하고 플립러닝 수

업 방법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의사가 있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연구책임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공지하였다.

C. 연구절차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시작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심의 및 승인을 받았다(IRB번호: 1040647-201904-HR-002-02). 인터뷰는 개별 심층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가 1:1로 실시하였고, 대상자 모집이 이루어진 후 방학 때에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자는 연구자 중 교육학 박사학위자로서 플립러닝 교육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자발적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작성한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2) 인터뷰 내용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의 의미와 본질, 그리고 경험의 구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23].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문은 ‘플립러닝 수업에서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플립러닝 수업에 영향을 준 상황이나 요소는 무엇인가?’, ‘플립러닝 수업 경험은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플립러닝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플립러닝 수업 참여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학습자가 경험한 플립러닝의 효과는 무엇인가?’, ‘플립러닝 수업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자가 특별히 획득한 능력은 무엇인가?’의 질문을 통해 간호학과 대학생이 경험한 플립러닝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인터뷰 내용에 대한 확인

질적 연구 분석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연구 결과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성실히 반영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고 정리한 내용을 간호학과 대학생들에게 e-mail로 송부하여 인터뷰 전반적인 내용과 핵심, 그리고 의미 전달 등이 적절하게 기술되었는지를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의견을 e-mail로 회신하였다.

D. 연구자의 주관성 기술

연구자는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인 플립러닝은 대학생들

에게 ‘새로움’, ‘독특함’ 등으로 지각될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이 교수학습 방법에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편향된 생각을 인터뷰 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경청하고 수용적 태도로 듣고 질문하려고 노력하였다.

E. 타당성 확보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연구와 달리 타당성 입증에 어려우나 질적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묘사(thick description)를 기술하고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자의 선 이해, 주관적 가치를 성찰하고 연구자가 분석 과정에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기술하는 ‘연구자의 주관성(subjectivity statements)’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멤버 체크(member checks)를 수행하였다.

F.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 Colaizzi가 제시한 단계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1단계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필사한 후, 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현상과 관련된 의미있는 내용에 줄을 그어 표시한다. 2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있는 말이나 문장을 찾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참여자의 표현을 찾고자 노력하고 진술을 표현함에 있어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어휘로 바꾸는 과정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현상과 관련된 문장에서 의미를 찾아낸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군(theme clusters)으로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진술된 주제군이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는지 연구자 스스로 주제군의 타당성을 고려해 본다. 5단계에서는 분석된 자료를 주제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기술한다. 6단계에서는 결과를 통해 확인된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기본구조를 확인하고 조사한 현상을 통합하여 서술하려고 노력한다. 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으로 구성원 검토방법을 사용하였다[24].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 대학 학생들이 경험한 플립러닝 교육과 관련된 결과는 플립러닝 교육 전(pre-class), 교실 안(in-class), 교육 후(post-class)로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A. 플립러닝 교육 전(pre-class) 분석결과

플립러닝 교육 전(pre-class)을 분석한 결과 15개 주제어와 5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표 1). 15개의 주제어는 ‘선택권한 없음’, ‘모르고 신청’, ‘이게 뭐지?’, ‘충격’, ‘학습량 방대함’, ‘귀찮음’, ‘교수자마다 상이함’, ‘교양과목 선호’, ‘시간 자율성’, ‘공간의 용이성’, ‘이해력 향상’, ‘강의를 위한 강의’, ‘미디어 어려움’, ‘불충분한 사전학습’, ‘자기조절 및 통제력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5개의 중심의미 및 그에 따른 주제어 분석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부족

대상자들은 ‘선택권한이 없음’, ‘모르고 신청’, ‘이게 뭐

지?’의 주제어로 교육 선택에 정보가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2) 심리적 부담감

대상자들은 “만약에 잘못해서 날짜를 헛갈려 가지고 인터넷 강의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출석이 없어서 버리고 그런게 좀 충격”이라고 ‘충격’을 나타내며, 또한 전공과목에 대한 ‘학습량 방대함’, “처음 접하고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라며 ‘귀찮음’으로 심리적 부담감이 나타났다.

3) 교수법 차이

플립러닝 교육 전 대상자들은 “**간호학은 실습 설명을 간략하게 수업에도 해주시지만....”, “** 간호학은 안 다룬

표 1. 플립러닝 교육 전(pre-class) 관련 의미있는 진술

Table 1. Meaningful statements at the pre-classes of flip learning

중심의미	주제어	하위주제
정보 부족	선택권한이 없음	- 전공이라서 들었어요. 꼭 들어야 해서.....
	모르고 신청	- 그게 플립러닝인 줄 모르고 듣게 되었어요
	이게 뭐지?	- 처음에는 어? 이게 뭐지? 싶었는데. 1학년 때니까 이렇게 해도 되나?
심리적 부담감	충격	- 만약에 잘못해서 날짜를 헛갈려 가지고 인터넷 강의니까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출석이 없어서 버리고 그런 게 좀 충격?
	학습량 방대함	- **학은 워낙 양이 방대했고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나가는 진도가 한정되어 있으니 교수님께서 공부시키려고 교수님이 계속 수업만 하는 스타일이었고.....
	귀찮음	- 처음 접하고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법 차이	교수자마다 상이함	- **간호학은 실습 설명을 간략하게 수업에도 해주시지만 이제 미리 배우고 오고 그거를 나중에 복습을 해서 숙지를 해서 테스트를 보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셨어요. - **간호학은 안 다룬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들은 둘 다 들으려고 했던 거 같아요.
	교양과목 선호	- 교양을 들으면 진짜 교수님들이 일방향적으로 알려주시니까 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면에서 이 수업이 좋은 거 같아요. - 전공 과목보다는 인성이나 ㅇㅇ예술 쪽에서 활용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 교양교수님은 따로 만날수도 없으니 시간없으니까 수업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해도 잘되고...교양인 경우 제생각을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시는 것 좋았어요.
	시간 자율성	- 스스로 컨트롤 하면 시간에서도 훨씬 경제적...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바쁘면 그전에 해도 되는 것이고 -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율적인 부분이... - 맨날 밤에 들었거든요. 뭔가 더 집중이 잘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공간의 용이성	- 카페에서 듣는 거거나 집에서 듣는 거나 밥을 먹으며 듣는 거거나... -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서....
	이해력 향상	- 영상은 교수님 필기도 나오고 녹음대신 더 도움이 되요. - 모르는 파트는 고부하다가 언제든지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있었던 것 좋은 것 같아요. - 저는 한번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두 번 보니까 이해는 더 잘 됐 던거 같아요. 처음보다
	강의를 위한 강의	- 출석을 채워야지 이렇게 하고 동영상만 딱 틀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 듣다가 어디인지 몰라서 뒤로 감기해서 시간낭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학습자의 성취도 차이	미디어 어려움	- 교수님 얼굴이 나오면 판서가 작아져요. - 보이는게 작아져서 보기가 힘들어요. - 모바일로 로그인하기 불편해요. - 주변에 컴퓨터가 없어서 들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불충분한 사전학습	- 교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들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럼 애들이 다 대답을 못해요.
	자기조절 및 통제력 부족	- 혼자 컴퓨터를 켜서 마음먹기 까지도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 컴퓨터를 켤 시간도 없고, 켜기도 귀찮아요. 컴퓨터 접속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까먹어서 출석 체크를 가끔씩 놓칠 때가 있어요.

부분이 분명 있어요.” 등 과목마다 ‘교수자 마다 상이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교양교수님은 따로 만날 수도 없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수업 듣고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해도 잘되고.....” 라며 ‘교양과목을 선호’하는 등 ‘교수법 차이’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대상자들은 플립러닝의 사전 교육에 “내가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율적인 부분이...” 라고 하며 ‘시간의 자율성’, ‘공간의 용이성’, ‘이해력 향상’으로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학습자의 성취도 차이

플립러닝의 교육 전 대상자들은 “모바일로 로그인하기 어려워요” 등 ‘미디어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강의를 위한 강의’, ‘불충분한 사전학습’, ‘자기조절 및 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자의 성취도에 차이를 나타냈다.

B. 플립러닝 교실 안(in-class) 분석결과

플립러닝 교실 안(in-class)을 분석한 결과 5개 주제어와 2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표 2). 5개의 주제어는 ‘발표와 기억 향상’, ‘피드백’, ‘의사소통기술 향상’, ‘사고력 증진’, ‘생각할 기회 증가’로 나타났으며, 2개의 중심의미 및 그에 따른 주제어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2. 플립러닝 교실 안(in-class) 관련 의미있는 진술

Table 2. Meaningful statements at the in-classes of flip learning

중심의미	주제어	하위주제
효율적 수업방향	발표와 기억 향상	- 저의 과 친구들이 발표를 하면 떨어요. 친구들 이게 연관이 되어서 오히려 기억이 잘 떠올랐던 것 같아요. - 저는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 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피드백	- 교양 수업에서 제 생각에 대해 교수님이 피드백 해주시는 것 좋았어요. - 플립러닝 통해서 먼저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자신감 향상	의사소통 기술 향상	- 발표하는 스킬이나 상대방을 집중하게 하는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 자기를 표현하고 또 적절한 의사소통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 서로 의논을 하게 되니까 즉각적인 이견에 대한 코멘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친밀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사고력 증진	- 굳이 따지자면,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교수님이 말 빨리 넘어가고 말할 때, 생각이 없이 그냥 듣게 되는데. 강의도 좀 멈췄다가 생각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던 거 같아요... - 다른 과목보다 생각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할 기회 증가	- 플립러닝을 하면 교수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거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 다른 과목보다 생각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1) 효율적 수업방향

대상자들은 “저의 과 친구들이 발표를 하면 떨어요. 친구들 이게 연관이 되어서 오히려 기억이 잘 떠올랐던 것 같아요”와 같이 플립러닝 교육 시간에는 ‘발표와 기억 향상’이 되며, “플립러닝 통해서 먼저 준비하고 해당 내용을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면서 교수님께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라고 하며 ‘피드백’을 받는 것에 긍정적 모습을 나타내었다.

2) 자신감 향상

대상자들은 “자기를 표현하고 또 적절한 의사소통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라고 하며 ‘의사소통 기술향상’에 긍정적 모습을 나타냈으며, “굳이 따지자면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며 ‘사고력이 증진’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다른 과목보다 생각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플립러닝 교과목이 기존 교수법보다 ‘생각할 기회 증가’를 가져온다고 나타났다.

C. 플립러닝 교육 후(post-class) 분석결과

플립러닝 교육 후(post-class)을 분석한 결과 15개 주제어와 4개의 중심의미가 도출되었다(표 3). 15개의 주제어는 ‘기억과 암기에 도움’, ‘시험 전 복습’, ‘반복을 통한 학습’, ‘성적향상에 도움’, ‘보조 학습’, ‘스케줄 관리 책임’, ‘자기의지가 중요’, ‘50:50’, ‘자기관리가 된다면 추천’, ‘학습량은 비슷’, ‘실패작’, ‘집’, ‘강의식이 더 효과적’, ‘선택한다면 강의식’, ‘교실수업을 통한 정서적 충족’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중심의미 및 그에 따른 주제어 분석은 다음과 같다.

표 3. 플립러닝 교육 후 (post-class) 관련 의미있는 진술

Table 3. Meaningful statements at the post-classes of flip learning

중심의미	주제어	하위주제
수업에 긍정적 영향	기억과 암기에 도움	- 한번 들은 애 보다 더 이해가 잘 되고, 수업 시간이 외우는 시간이 된 거 같아요. - 영상만 보면서 바로 들으면서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시험 전 복습	- 시험기간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찾아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 오히려 시험기간 그런 때 되면 한 번 더 볼 수 있잖아요. 동영상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더 마무리 학습 같은 걸로 정리도 하고..
	반복을 통한 학습	- 한 세 번 정도는 그 구간을 반복해서 본 적이... - 한 다섯 번 정도...그러니까 그게 그 실습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계속 프로토콜을 보면서 익혀야 되는 거여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돌려서 봤어요. - 반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성적향상에 도움	- 성적 향상 도움되는 것 같아요.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 부담감도 있지만 시험은 일단 잘 봐야하기 때문에 그래도 영상을 계속 보면 시험은 그래도 보장이....
	보조 학습	- 학습을 도와주는 보조자인거 같아요. 이걸 항상 제가 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자기부담 강화	스케줄 관리 책임	-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내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됐다고 해야되나? - 시간 지키기, 지켜서 틀어 놓고 그랬으니까
	자기의지 중요	-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인 거 같아요. - 어찌되었든 찾아서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일반 수업은 가기만 하면 되는데 플립러닝은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놓치는 것 - 더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 했던 것 같아요.,
	50:50	- 학기 끝날 때 쓰음 되니까 괜찮아서 한번 더 해도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 플립러닝 수업이 50:50 이상으로 많아진다면 전 그거는 싫을 거 같아요. - 새로워서 좋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선호하지 않음	자기관리가 된다면 추천	-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양이 많으니까...플립러닝을 들으니까 강의에 대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공부를 하다 보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수행할 수 있어서.. -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런 학생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데, 일반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습량은 비슷	- 수업을 몇 번 더 듣는다는 그 점에서 이제 시간이 늘어나긴 하는데 제가 공부를 따로 공부하는 양은 비슷비슷 한 것 같아요. - 하지만 확실히 객관적인 공부량은 좀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실패작	- 좀 실패작인 거 같아요. 그냥 틀어 놓는 친구가 많았던 거 같고... - 저희가 경험한 플립러닝은 별로였던 거 같아요. 그냥 별로였던 거 같아요. - 플립러닝 그냥 안 하거나...
강의식 선호	집	- 어떻게 보면 좀 짐이라고...솔직히 굳이 짐이 너무 컸어요. - 출석 점수 깎이고 이리다 보니깐 그 출석에 대한 부담감 좀 컸던 거 같아요.
	강의식이 더 효과적	- 저는 예습보다 복습이 더 크게 남는 거 같은데, 그 시간에 차라리 복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기억이 잘 나고... - 저는 강의실 수업이 더 좋아요. 교수님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선택한다면 강의식	- 교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줄 때 표정을 보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 해부학처럼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과목은 강의식 수업이 나은 거 같아요. 나도 해부학이면 강의식이요. 저도요. - 전공기초가 되는 것들은 아무래도 개념이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강의식이...
	교실 수업을 통한 정서적 충족	- 사람 만나는 기회가 줄어 들잖아요. - 왜냐면 저희는 가끔 학교 오는 날로 살거든요... 실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학교 와서 친구들 만나고... -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이라는 그런 거 때문에 같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좋고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 것도 작지만 힐링 될 수 있고...

1) 수업에 긍정적 영향

플립러닝 교육 후 대상자들은 “영상만 보면서 바로 들으면서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미지를 기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하면서 ‘기억과 암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시험기간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제가 다시 찾아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좋은 장점인 거 같아요”라

고 ‘시험 전 복습’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을 통한 학습’, ‘성적향상에 도움’, ‘보조 학습’으로 플립러닝 교육 효과를 나타내어 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부담강화

대상자들은 교육 후 플립러닝 교육에 대해 “내가 책임져

야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더 내 스케줄 관리를 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라고 ‘스케줄 관리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으며, “어찌 되었던 찾아서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일반 수업은 가지만 하면 되는데 플립러닝은 자기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라고 생각하여 ‘자기의지 중요’하다고 느껴 이는 자기부담이 강화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선호하지 않음

플립러닝 교육 후 대상자들은 “플립러닝 수업이 50:50 이상으로 많아진다면 전 그거는 싫을 거 같아요” 라고 대답하는 등의 ‘자기관리가 된다면 추천’, ‘학습량은 비슷’ 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좀 실패작인 거 같아요. 그냥 틀어 놓는 친구가 많았던 거 같고...”와 같이 ‘실패작’이라고 느끼기도 하며, “출석 점수 깎이고 이러다 보니깐 그 출석에 대한 부담감 좀 컸던 거 같아요”라고 생각하며 플립러닝에 대해 ‘짐’으로 느끼며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강의식 선호

대상자들은 플립러닝 교육 후 “저는 강의식 수업이 더 좋아요. 교수님과 이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는데 저는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라고 생각하는 등 ‘강의식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한다면 강의식’을 선택한다고 하였으며, “왜냐면 저희는 가끔 학교 오는 날으로 살거든요.. 실습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학교 와서 친구들 만나고..”라며 ‘교실 수업을 통한 정서적 충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생들에게 플립러닝 교육 경험에 대한 의미와 기본구조를 현상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시도되었고, 이를 Colaizzi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교육 전(표 1), 교실 안(표 2), 교육 후(표 3)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육 전 15개 주제어와 5개 중심의미, 교실 안 5개 주제어와 2개의 중심의미, 교육 후 15개 주제어와 4개의 중심의미로서 총 35개 주제어와 11개 중심의미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은 학생들에게 ‘새로움, 반복정취, ‘시간 조절’ 등의 긍정적 평가를 포함한 새로운 수업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학생들에게 ‘충격, ‘당황, ‘의지박약’ 등의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경험한 수

업방식과 다른 수업의 내용과 수업방식 즉, 온라인 출석, 학습 내용, 평가 방식의 변화가 학생들의 전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변화’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은 심리적 불편함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에 참여한 다수의 간호학과 학생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사전학습 과정 상 불편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플립러닝 교수-학습방법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편함을 경험하고 출석을 위해 사전학습 영상을 틀어만 놓는 경험으로 인해 사전학습을 시간낭비로 인식하기도 한다. 또한 사전학습을 위한 온라인 공지, 퀴즈 등 학습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서 학습하기도 부족한 시간에 학습관리까지 해야 하는 부담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자 마다 교실 안 수업(in-class) 운영 방식이 상이하고 학습자의 사고 촉진을 유도하지 못하는 수업 인 경우 학생들은 기존의 수업과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전학습의 경우, 학습자가 시스템 오류, 공지 확인 등 학습과정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학습자들은 온라인 교육의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하여 ‘틀어 놓기만’을 경험하거나 학습자의 집중력과 흥미 저하 등의 문제를 경험한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시 학습자들은 온라인 교육을 수행할 때 느끼는 동기유발 저조, 흥미 저하 등의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 문제뿐만 아니라 사전 학습의 질 향상, 시스템 개선 등의 문제를 교수자 측면에서도 다각도로 고려하고 수업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학습자 측면에서 플립러닝의 ‘학습자 책임’의 부분이 상당하며 전체 학습관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플립러닝 전반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플립러닝을 경험한 학생들은 교수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불만족, 과도한 학습부담 등의 이유로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에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는다는 선행의 연구 결과를 볼 때[25,26],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의 책임감이 일반 강의식 수업 보다 더 많이 요구되며 교수설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플립러닝의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거나, 학습자 주도를 토대로 교수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과 플립러닝 수업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 플립러닝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도 강의 내용에 계획된 학습자 중심 요소들이 실제 구현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기존의 강의식 수업이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립러닝에 대한 학습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효율적인 교과 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수자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학습자

이해, 명료한 수업 목표설정 등 교수설계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7]. 이를 위해 간호학과 교과목을 플립러닝으로 설계하기 위해 우선, 교수자들은 첫 시간 ‘학습자 특성 분석’을 우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립러닝을 통해 학습자의 고등사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수자는 더 이상 ‘지식 전달자 역할’을 벗어나야만 한다. 더불어 플립러닝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을 효과적으로 돕고 학습의 기반이 되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동시에 학습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지워주는 존재이며[28],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들은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사전학습 자료를,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나 시청할 수 있는 훌륭한 ‘보조 학습 자료’로 생각한다. 그러나 학습자의 성향에 따라 동영상 활용의 정도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생이 사전학습을 수행했다는 가정 하에 교실수업 진행되는 경우, 사전학습을 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로 인해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교실수업에서 팀을 이루어 실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무입승차’를 직면하게 된다. 사전학습을 위한 동영상은 학습의 유용성과 이해도 증진[24]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문제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역량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고 교육의 내용과 목표를 조정하여 플립러닝을 설계해야 함이 강조된 바 있다[27]. 특히 팀 중심 학습을 설계 시, 팀 구성, 팀 활동 내용 및 평가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설계가 더욱더 요구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학생들이 경험한 플립러닝은 교수자마다 너무 상이했고 플립러닝 강좌임에도 그냥 강의식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교수자도 있어 학생들은 교수학습 방법상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을 무분별하게 적용하기 전에 학습자 중심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교수자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 적용 이전에 교수자들은 교수설계 요소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이 학교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이 선행될 때 플립러닝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전공 교과목의 수업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면 학생들은 무엇을 선택할까?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간호학과 학생들은 사

전학습으로 제공되는 영상은 복습용으로 매우 유익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학습자에 따라서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조 수단에 불과하다고 느끼고 실제 학습량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강의식 수업이 간호학과 전공교과목 교육에 더 적합하다고 인식한다. 플립러닝의 시스템 오류 및 불편함을 경험하면서 간호학과 학생들은 향후 전공교과목은 플립러닝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지길 바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을 주도한 교수학습방법의 하나로 플립러닝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에게 급작스러운 일이며 학생 자신의 의지로 선택 가능한 상황이 아닌 환경 속에서 플립러닝 수업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플립러닝 곤란도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제 시기, 과제 난이도와 분량, 팀원 간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팀원 간의 모임 시간조율, 교수자와의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 모임 장소 및 실습비용 영역 순으로 학습자 곤란도가 나타난 선행연구결과를 보았을 때[29] 이는 교과목의 특성이 플립러닝 설계와 운영 상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간호학의 경우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하는 학문적 특성 상 학생들의 목표는 ‘우수한 성적’ 혹은 ‘시험 통과’ 일 것이며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존 플립러닝의 고유 형태인 온라인 강의-오프라인 상호작용이라는 전통적 플립러닝 외형적 특성 보다 교수자-학습자 혹은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곤란도 해결이 플립러닝 성공의 주요 열쇠라는 결과를 발견하였다는데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교수학습 방법은 학습자 중심 학습이 가능하고, 학습자의 사고촉진, 협력학습 증진,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교수설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 둘째, 지금까지 ‘교수-학습의 혁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자 능력, 선호하는 학습 방법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미래교육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끌어 갈 때 학습의 주체가 될 수요자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간호학과의 실제적 학문의 실천영역이 임상현장임을 더욱 감안하여 플립러닝 교수법의 성공을 위한 교수자-간호학생 혹은 간호학생-간호학생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곤란도 해결을 위한 좀 더 다각도적이며 적극적 해결을 위한 후속 및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1] Y. Wee, H. Jung, and H. Lee, "A case study of flipped learning application of public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on the 4th industry occupation," *Journal of Practical Engineering Education*, vol. 10, no. 2, pp. 103-111, December 2018.
- [2] J. Bergmann and A. Sams, "Flipped learning: Maximizing face time," *Training Development*, vol. 68, no. 2, pp. 28-31, 2014.
- [3] M. J. Lage, G. J. Platt, and M. Treglia, "Inverting the classroom: A gateway to creating an inclusive learning environment,"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 31, no. 1, pp. 30-43, March 2000.
- [4] H. Kim and Y. H. Kim, "An action research on flipped learning for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courses," *Journal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24, no. 4, pp. 265-276, November 2017.
- [5] Y. S. Choi and J. Y. Kim, "Effects of flipped learning in core competencies of nursing students: Based on communication, problem solving, and self-directed learning,"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9, pp. 1163-1182, 2018.
- [6] H. S. You and N. Y. Kim,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information liter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7, no. 21, pp. 491-510, 2017.
- [7] J. O'Flaherty, and C. Phillips, "The use of flipped classrooms in higher education: A scoping review,"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vol. 25, pp. 85-95, April 2015.
- [8] M. Lee, S. J. Chang, and S. J. Jang, "Effects of the flipped classroom approach on th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course," *Journal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6, no. 2, pp. 196-203, 2017.
- [9] K. C. Hong, "A critical analysis on implementing the flipped classroom," *The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 28, no. 1, pp. 125-149, 2016.
- [10] H. J. Han, C. I. Lim, S. L. Han, and J. W. Park,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integrating online and offline modes of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1, no. 1, pp. 1-38, 2015.
- [11] J. Leem,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lippe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32, no. 1, pp. 165-199, 2016.
- [12] C. Olier, "The phenomenological approach in nursing research," *Nursing Research*, vol. 31, no. 3, pp. 178-181, 1982.
- [13] M. van Manen,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Human Science for an Action Sensitive Pedagogy*. London, ON: Althouse, 1999.
- [14]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15] B. Kim, K. Kim, I. Park, K. Lee, J. Kim, J. Hong, M. Lee, Y. Kim, I. Yoo, and H. Le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Giorgi, Colaizzi, Van Kaam method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9, no. 6, pp. 1208-1220, December 1999.
- [16] H. J. Gu, "Effectiveness of flipped learning in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8, no. 5, pp. 2829-2841, October 2016.
- [17] Y. R. Kweon and B. S. Choi, "Effects of a psychiatric nursing education using flipped learning on learning transfer motivation and learning self-efficienc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22, no. 1, pp. 447-460, 2020.
- [18] O. S. Lee and Y. G. Noh, "The effect of the flipped learning on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3, pp. 253-260, March 2019.
- [19] C. B. Della Ratta, "Flipping the classroom with team-based learning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e Education*, vol. 40, no. 2, pp. 71-74, April 2015.
- [20] R. Pierce and J. Fox, "Vodcasts and active-learning exercises in a flipped classroom model of a renal pharmacotherapy module," *American Journal of Pharmaceutical*

- Educational*, vol. 76, no. 10, pp. 1-5, 2012.
- [21] S. J. Han and H. Jeong, "Study on the effect and experience of the flipped learning,"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pp. 101-108, 2016.
- [22] Y. J. Kim, E. Y. Cho, and E. Jeon, "A study on flipped learning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pp. 159-163, November 2017.
- [23] M. Q. Patton,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 CA: Sage, 2002.
- [24] J. Young, R. McGrath, and S. Filiault, "Review: Linda Dale Bloomberg & Marie F. Volpe (2008). Completing Your Qualitative Dissertation: A Roadmap From Beginning to End,"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 / 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vol. 10, no. 3, September, 2009. <http://nbn-resolving.de/urn:nbn:de:0114-fqs0903163>.
- [25] Y. Hao, "Exploring undergraduates' perspectives and flipped learning readiness in their flipped Classroom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59, pp. 82-92, June 2016.
- [26] J. Khanova, M. T. Roth, J. E. Rodgers, and J. E. McLaughlin, "Student experiences across multiple flipped courses in a single curriculum," *Medical Education*, vol. 49, no. 10, pp. 1038-1048, October 2015.
- [27] Y. Lee, "Learners' experiences of learner-centeredness in college flipped classroom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 24, no. 5, pp. 329-354, 2018.
- [28] J. Elen, G. Clarebout, R. Leonard, and J. Lowyuck, "Student-centered and teacher-centered learning environments: What students think," *Teaching in Higher Education*, vol. 12, no. 1, pp. 105-117, January 2007.
- [29] S. H. Cheong and M. J. Kwak, "The solutions for flipped-learning difficulties from the perspectives of engineering and science major learner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0, pp. 519-541, 2018.



유 하나 (Hana Yoo)_정회원

2000년 2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1년 8월 : 연세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1년 9월 ~ 2018년 2월 : 한국성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018년 3월 ~ 현재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교수방법, 응급환자 간호



윤 연서 (Yeon-Seo Yun)_정회원

1998년 2월: 가톨릭관동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박사
 1999년 5월 ~ 현재 :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본부
 <관심분야> 질적연구, 아동간호, 응급간호



김 옥분 (Ock-Boon Kim)_종신회원

1998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
 2010년 :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심리박사
 2013년 : 한양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책임연구원
 2016년 : 서경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책임연구원
 2018년 : 대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원 조교수
 2020년 : 인하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교수
 <관심분야> 학습동기, 학습전략, 영재교육, 비교과 교육, 교수방법